2026년 4월 8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미국 의약품 관세가 인도에 미칠 영향

인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 의약품 관세 발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의약품 및 관련 원료에는 원칙적으로 100% 관세가 부과되며, 대형 제약사에는 120일, 중소 제약사에는 18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한국·EU·일본 등 미국과 별도 무역 합의가 있는 국가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미국 정부와 온쇼어링 협정만 체결한 경우 20%, 최혜국대우(MFN) 가격 협약과 온쇼어링 협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인도 대미 수출 90% 차지하는 제네릭 면제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함

인도의 2025년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약 97억 달러로 전체 의약품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약품 관세 조치는 인도 제약·바이오 산업에 작지 않은 변수다. 다만 대미 의약품 수출의 약 90%가 제네릭이고,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네릭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가 제외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도 제약사들의 단기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발표 이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Nifty Pharma 지수도 장중 4% 하락했는데, 이는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세 면제가 1년 후 재검토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관련 불확실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이번 조치가 최근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고도화 전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정부는 2월 발표한 FY2027 예산에서 제약·바이오를 전략 육성 산업으로 제시하고, 고부가 의약품 생산 역량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 고도화가 진전될수록 제네릭 중심의 수출 방어력은 약해지고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민감도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어, 이번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인도 제약산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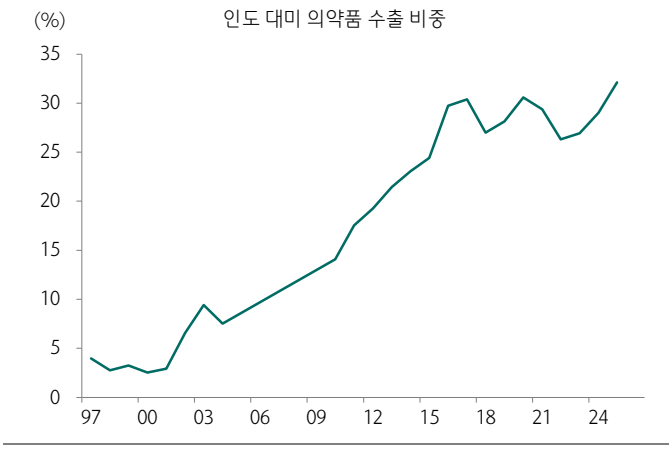
향후 미국 시장 의존도 분산 여부가 중요할 것

결론적으로 현재 인도의 대미 의약품 수출은 제네릭 중심이기 때문에 금번 관세 정책이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미국 내 제네릭 수요가 커 관세 부과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이번 면제를 한시적이라 명시한 만큼 관련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가 이어질 경우 인도 제약사들이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미 정책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어 중장기 부담 역시 상존한다. 향후 인도 제약·바이오 산업은 미국 시장 의존도를 얼마나 분산할 수 있는지에 따라 종목별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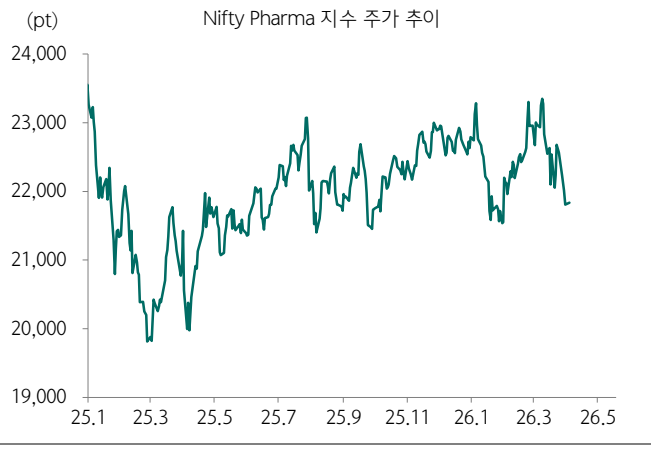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도표1. 인도 대미 의약품 수출 비중



자료: CEIC, 하나증권

도표 2. Nifty Pharma 지수 주가 추이



자료: CEIC, 하나증권

도표 3. 인도 FY2027년 예산안 : 7대 전략 산업 부흥 계획

인도 7대 전략 산업 부흥 계획	
산업	세부 내용
제약·바이오	-향후 5년간 1,000억 루피 투자해 인도를 글로벌 바이오 제조 허브로 육성 -국립제약교육연구소(NIPER) 3곳을 신류 설립 -100개 이상 공인 임상시험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반도체	-인도 반도체 미션(ISM) 2.0을 출범해 장비·소재의 국내 생산 역량을 확충 -연구·교육(훈련)센터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숙련 인력 양성 추진
전자	-전자 부품 제조 지원 예산 4,000억 루피로 증액
희토류	-희토류 자원이 풍부한 오디샤, 케랄라, 안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 주를 지원하기 위해 희토류 전용 회랑을 설립하여 채굴, 가공, 연구 및 제조를 촉진
화학	-주(州)정부 주도로 전용 화학단지(Chemical Park) 3곳 조성
자본재	-2개 지역에 디지털 및 자동화 기반의 하이테크 단지(tool room) 조성해 고정밀 부품을 설계·시험·제조하고 대량 생산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체계를 구축 -건설 및 인프라 장비 역량 강화 지원책 도입해 고부가·첨단 기술 기반 장비의 국내 제조 확대 -향후 5년간 1,000억 루피 투입해 글로벌 경쟁력 갖춘 컨테이너 제조 생태계 조성
섬유	-천연섬유·인조섬유·신소재 섬유의 자국 내 제조를 추진하고, 전통 섬유 클러스터의 현대화(기술 고도화, 설비 지원 등) 추진

자료: 하나증권